

광주·전남 물가 8개월째 상승...“인플레이션은 없다”

호남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가 회복되기도 전에 원자재 값 상승 영향으로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8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통계 당국은 하반기 물가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2.6%·전남 3.0% 상승했다.

전남은 지난 달 충남·전북·제주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

두 지역은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2.4%)을 웃돌았다. 전남은 전달에 이어 두 달째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 역시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광주 3.5%·전남 4.0%를 기록했다.

호남통계청이 조사한 460개 가격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광주 260개·전남 269개

광주 전년비 2.6%·전남 3.0% 올라...전국 평균 웃돌아

마늘·달걀 등 농축수산물값 고공행진에 외식비도 ‘경중’

당국 “하반기 기저효과 완화·공급 회복...상승률 2% 안팎”

에 달했다.

지난 달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광주 10.3%·전남 10.1% 상승했다. 광주지역 농축수산물 ‘두 자릿수’ 상승률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 농축수산물 73개 가운데 전년보다 비싸진 품목은 광주 46개·전남 49개로 조사됐다.

마늘 가격은 광주가 69.0%, 전남은 48.8% 올랐다. 지난 2월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간마늘(국산) 값은 1kg당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000원) 보다 50% 뛰었다.

6월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이(광주

60.6%·전남 37.6%), 사과(광주 48.3%·전남 72.1%), 배(광주 36.5%·전남 41.1%), 풋고추(광주 33.3%·전남 21.0%), 고춧가루(광주 25.6%·전남 47.2%), 쌀(광주 15.1%·전남 14.6%), 국산쇠고기(광주 14.7%·전남 9.0%), 돼지고기(광주 2.2%·전남 9.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달걀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에 따른 산란계 부족이 이어지면서 광주는 60.1%, 전남은 39.1% 급등했다.

앞서 정부는 달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수입 물량을 7000만개로 확대했으나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외식비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달 지역 외식물가는 광주 3.5%·전남 2.4% 상승했다. 광주 외식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3%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왔다.

외식물가 가운데 광주에서는 구내식당 식사비(11.9%)와 갈비탕(11.5%)이 크게 올랐고, 전남은 족(7.6%)과 쇠고기 외식비(7.0%), 자장면(6.7%) 순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석유류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광주 3.0%·전남 3.3% 올랐다.

지난 달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광주 21.1%·전남 20.8% 상승했으며, 경유는 광주 24.3%·전남 23.8% 올랐다.

광주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8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3일 l당 1600원을 돌파했다. 광주보다 하루 먼저 휘발유 값 1600원을 넘긴 전남 역시 10주째 가격이 오름 추세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에 소비자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47·서구 동천동)씨는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 재료를 사러 왔는데 마늘 값이 크게 올라 부담”이라고 말했다고 1인 가구인 이모(26·북구 운암동)씨는 “작장 인근 식당이 이달부터 음식 가격을 1000원씩 올려 집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8000원을 훌쩍 넘겨 놀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공급 충격’에 따라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통계 당국은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상악화로 인한 국제 곡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이 10%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와 농축수산물 공급 회복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토스를 배운다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은행장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금융플랫폼 ‘토스’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를 찾아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와 의사결정 과정을 살피고 광주은행·토스뱅크 간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소매·유통가 “휴가철·추석 특수 기대”

3분기 경기전망 ‘긍정적’...백화점·마트 “매출·수익 증가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광주지역 소매·유통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추석 명절 특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3분기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59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은 1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분기(114)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들은 제3분기 경기 호전될 것이라고 봤다.

경영 항목별로는 매출(107)과 수익(107)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비용(89)은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98) 역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단기 근로자 고용의 일부 감소를 전망했다.

업체별로는 보현 백화점(125)은 소비심리의 회복과 보복소비 분위기에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고, 슈퍼마켓(114)은 근거리 쇼핑을 선호하는 추세와 계절적 영향에 따른 객단가 상승으로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마트(100)는 가정의 달 특수를 누렸던 2분

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편의점(91)은 계절적 성수기에도 경쟁심화로 매출과 수익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44.1%는 ‘적극 대응’했고, 33.9%는 ‘소극 대응’했으며,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22.0%로 조사됐다.

가장 중요한 경영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매출 확대’(52.5%), ‘수익성 향상’(49.2%), ‘가격경쟁력 확보’(40.7%) 등을 꼽았으며, 소비 활성화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경기부양’(40.7%)과 ‘고용창출 및 고용불안 해소’(18.6%), ‘물가안정·하락’(11.9%) 등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TF팀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과 납부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별지도 TF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행 실태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TF팀은 공제회 이사형 광주지사를 팀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도 대상은 광주·전남·북

에서 시공 중인 총 11개소(총 공사금액 1조8000억원 규모)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특별지도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신고 위반과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계도하는 게 목적이다.

건설사업장의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개선기간을 부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위반사항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97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1	16	21	28	36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11,544,045		14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3,221,488		87
3	5개 숫자일치			1,516,850		2,479
4	4개 숫자일치			50,000		124,923
5	3개 숫자일치			5,000		2,061,176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 입구)